

인도 : 이영제 목사

묵	도	_____	다	같	이
기	원	_____	인	도	자
개	회	송 _____ 27장 _____	다	같	이
교	독	문 _____ 65번 _____	다	같	이
신	앙	고백 _____ 사도신경 _____	다	같	이
찬	송	_____ 308장 _____	다	같	이
기	도	_____	이	창	결집사
성	경	봉독 _____ 요15:1-11 _____	다	같	이
특	송	_____			
설	교	_____ 예수님은 누구 신가? _____	이	영	제 목사
		(20. 나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찬	송	_____ 336장 _____	다	같	이
세	례	식 _____ 세례자:여성일 성도 _____	이	영	제 목사
선	포	_____	인	도	자
찬	송	_____ 141장 _____	다	같	이
성	례	식 _____	인	도	자
헌	금	_____	다	같	이
봉	헌	기도 _____	인	도	자
광	고	_____	인	도	자
송	영	_____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_____	다	같	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축	도	_____	인	도	자

지난 설교제목 : 길, 주, 생명, 진리, 부활, 생명의 떡, 홀과 신로, 왕, 돌는 해, 신랑, 산돌, 반석, 영, 감독, 양의 문, 선한목자, 해방자, 유월절 양, 창조주

-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마 26:26)
-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 26:27-28)

주안교회 24시간 기도

■ 기도 참여자 ■

매일1시간 : 오전6시(차영숙) / 오후1시(이영제)
6시(김효선) 유동(이창걸)

■ 기도 제목 ■

- 주안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24시간 릴레이 기도팀이 하루속히 완성되도록
교회의 파송선교사(김형주, 정00)님을 위해서
중국의 00교회와 리00전도사님을 위해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안교회 가족 모두가 주님의 축복으로 평안할 수 있도록
윤령자 강도사님과 유니아키를 위해서
- 이영제 목사님을 위한 기도제목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가 넘치도록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위해서
인도차이나선교대회(11월 24-27일 캄보디아 심리암)에 특강
- KCM을 위한 기도제목
인터넷을 전도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KCM 파송 및 협력선교사님을 위해서
멀티미디어팀이 잘 운영되도록
세계선교정보연구원 모임이 잘 활성화 되도록
- 해외선교를 위한 기도제목
세계의 한국선교사님들의 영, 육 간의 건강을 위하여
아직까지 복음을 한번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을 위하여
해외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국내의 선교단체들을 위하여

교회 소식

- ♥ 주안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 11월 30일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 ♥ 24시간 릴레이 기도팀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전도를 위해서 기도와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영제 목사가 직접 연구한 히브리서 주석자료를 기초로 강해설교 합니다.

12:14-29 배교에 대한 경고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 Εἰρήνην(에이레넌) “번영, 고요, 안식”을 “좇으라” διώκετε(디오케테) “추구하십시오”로 명령법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권면 이상의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거룩” ἁγιασμόν(하기아스몬) 해지지 못하고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롬6: 19, 22).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ἐπισκοποῦντες(에피스코퐁테스) ‘열심히 관찰하며 감독하는 것’인데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것을 말한다. 이 단어는 다른곳에 단 한번 나오는데 빌전5:2에 (양 무리를 “치되”)로 번역되었다.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이르지 못하는 자” ὑστερῶν ἀπὸ(휘스테론 아포) ‘자신의 부족으로 떨어져 나간 것’을 뜻한다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신29:18의 “독초와 썩의 뿌리가”를 의역하여 인용으로 보이며 “쓴 뿌리”는 독이 있는 식물로 우상숭배나 배교를 뜻하고 있다.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은 그릇 식물을 위하여... 창25:29-34의 인용으로 ‘에서’를 예로 들어 기독교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도덕과 일단의 일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있다. “망령된” βέβηλος(베벨로스)은 ‘이방인에게 밟도록 허락되지 않은 곳을 밟는 것’의 의미로 “망령된, 더러운, 신성하지 않은” 것으로 영적인 것보다는 현세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17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앞 절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가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했지만 그 기회가 다 지나가 버렸음을 말한다. 구약시대의 기업은 상속받을 자(히6:12, 17-18, 히9:15)를 말하는 것으로 후계자를 말한다.

18-19절 본문에 직접 시내산 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과 소리로 현현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다(출19:16-22, 출20:18-21, 신4:11, 신5:22-27).

저자는 출19:12-13절을 생략된 형태로 기록했고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나’(출20:19)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줄 것을 호소하였다(신5:23-24).

20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출19:12-13을 인용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짐승이라도 이 산에 오면 돌로 쳐죽여라! 하신 말씀이 두려워 감당하지 못했다]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은 예전의 모세에게도 “떨리고” ἔντρομος(엔트로모스) 무서운 것이었다.



제목 : 예수님은 누구 신가?

(19. 나의 창조주이신 예수님) / 본문 : 요1:1-13

오늘 본문 요한복음1:1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자신의 복음서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까?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시작하고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으며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로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친자를 창조하셨던 창조주이시라면 바로 예수님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요1:10)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첫 이적의 사건을 2장에 기록하는데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표적)인 것입니다. 요2:1-12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 잔치”입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신 것을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은 창조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많은 인도자,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 등이 왔습니다. 미래에 있을 일은 예언을 한다든가 교훈을 주거나 인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요1:11)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는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큰일납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갖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마24:41)고 했습니다.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골1:15-17)고 말합니다. 천지의 창조와 천사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계3:14)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라는 말을 사용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냥꾼과 호랑이



이영재 목사
주앙교회 담임
합류선교회의 대표

인도의 우화이다.

어떤 사냥꾼이 사냥기로 이름난 벵갈 호랑이를 만났다.
그러나 호랑이가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영겁경에 방아쇠를 당겨
보았으나 실패였다. 호랑이도 급작스레 점프를 하면서 뒷발톱을 써
보았지만 실패였다. 이날의 승부는 무승부였다.
집에 돌아온 사냥꾼은 그날부터 근접사격 연습에 전념하였다.
충분한 연습이 끝나고 숲으로 갔다.
거기서 호랑이를 볼 수 있었다.
그러데 놀라운 것은 호랑이 역시 짧게 뛰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기려면 우리의 힘으로만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계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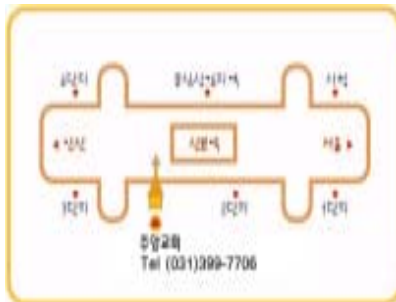
주앙교회 파송, 협력하는 선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김형주 선교사 / 필리핀 정형구 선교사
베트남 정00 선생 / 중국 리00 전도사 / 인도 초띠옥이 자매
파키스탄 정00 선교사 / 미국 김능수 전도사

• 예배시간 안내 •

주일 예배	오전 11시
주일 오후(성경 강해)	오후 2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수요 예배	오후 7:30분
금요 심야기도회	오후 9시

• 주앙교회를 찾아오시는 길 •



대한예수교장로회

주 앙 교 회

JOOANG PRESBYTERIAN CHURCH

표어

말씀으로 은혜가 가득한 교회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봉사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
선교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
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사 40:31)

담임목사 이 영 제
Pastor Lee, Young Jae

435-050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73-3(제일프라자 5층 본당, 사무실 4층)

교 회 : (031)399-7706 선교회(KCM) : (031)399-7705

목사관 : (031)398-7702 핸드폰 018-213-7702

Homepage : <http://kcm.co.kr/church/> Email : webmaster@kcm.co.kr